

추수감사주일

김기중(목사, 경기 이천 장동교회)

본문 : 엡 5:15-21

제목 :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벌써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유난히도 가뭄이 심했었고 큰 비도 내렸지만 그럼에도 우리 농민들의 피땀어린 수고로 풍년 농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사회가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감사하는 생활이 메말라가고 원망과 탄식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금년 농사도 풍년이지만 좋은 값을 받고 팔 수가 없어 시름에 빠지고, 농가 부채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므로 희망을 잃어버리는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환난의 때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살전5:18).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시편50:23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로는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명예도 욕심도 지식도 말입니다. 어떤 상황변화도 천국은 만들어 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나라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환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금 바로 감사의 생활로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놀랍게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레위기23:9-14과 창4:3-4에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쟃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처음 농사한 것 중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 신앙의 자유만을 찾아 기아와 병고에 시달리면서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간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로부터 1년 후 낫설고 물 설은 개척지에서 갖은 풍토병과 각종 생활의 질고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해 농사를 수확한 후 얻은 새 땅에서의 첫 결실에 감사하며 이웃에 친절한 인디언들을 초대해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 고기 등을 함께 먹으며 신대륙에서의 기쁜 첫 추수감사절을 가진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후 1623년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추수감사절을 공식절기로 이를 전국적으로 지킬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추수감사절이 왕의 관습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그 뒤로 추수감사절은 일부 주에서만 비공식적으로 지켜지게 되었고 그 기념일도 주마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폐지되었던 추수감사절이 다시 지켜지기 시작한 것은 1863년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연례적인 경축일로 선포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이는 Godey's Lady's Book의 편저자였던 사라요 세과해일 여사의 추수감사절은 국경일로 정해져 연례적인 절기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이 당시 미국에서는 남북전

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추수감사절 하룻 동안은 전쟁이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은 1904년 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장로교 단독으로 11월10일을 추수감사절로 기념하던 것을 1914년 교단 선교부의 회의결과에 따라 미국 선교사가 조선의 입국한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변경하여 지키다가 그 후 수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어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계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추석(중추절)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일부 교회와 교파에서는 이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볼 때 추수감사주일은 꼭 풍년농사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은혜로 범사에 감사,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때 무엇이 있어서, 형통해서, 즐거워서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골3:15-17의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즉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으나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에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대신에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로 죽으셨고(엡2:1)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거저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엡2:8-9). 이세상의 재물이 없어도 명예나 권력을 가지지 못하였어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한없이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3:17-19)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조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실하나 때문에 감사해야 하며 이렇게 감사하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참새 한 마리도 들의 꽃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보다 더 귀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칸힐리는 기쁨의 감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 때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으로 고난과 역경가운데서 염려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신앙을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순도 높은 금은을 만들기 위해 뜨거운 불로 단련하여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어려움과 역경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곳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연단을 통해 차원 높은 신앙을 갖게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고 욕심만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도에게서 감사가 없다면 노래 잃은 카나리아, 오아시스 없는 사

막, 향기 없는 국화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흘러간 역사 속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해볼 때 모두 감사해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기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독자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시는 사역 위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정기구독료 납부에 관한 일입니다. 정기구독 신청하신 지 1년이 지난 분들은 다시 구독료를 납부하셔야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책 뒷면에 있는 계좌로 온라인으로 보내시거나 지로용지를 보내드리오니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